

“봄시다” 프로그램에서 “쇼 음악중심”까지

- 여성 비디오맨(?) 되기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OJT(on-the-job training, 직장 내 훈련) 때의 일이다.

<남자 셋 여자 셋> 녹화 부조!!

말로만 듣던 녹화현장에 와보니 생각만 해도 흥미진진하고 신동엽 얼굴만 봐도 웃길 거 같은데... 이상하게도 부조정실 안은 고요하기만 하다.

기술 부문 신입사원 중 유일한 여사원이었던 내게 모든 선배님들이 잘 대해 주셨고 그날의 비디오 선배님께서도 OJT 중인 신입사원이었던 나에게 굳이 주지 않아도 좋을 특혜를 베풀어 주었다.



여의도 MBC 시절 아날로그 부조정실

“지현아, 여기 앉아서 아이리스(iris)를 한번 잡아 봐.”

“아니, 아녜요.”

“생각보다 쉬워. 그냥 밝으면 내리고 어두우면 올리면 돼. 어서..”

“아니, 전 진짜 괜찮은데요...”

‘조이스틱처럼 생긴 것이 오락실에서 본 듯한데... 스틱을 내리면 카메라가 어두워지고 올리면 밝아지고... 위에 있는 많은 버튼은 어디에 쓰는 걸까?’

슛(shoot)이 들어갔다. 스틱을 움직일 수가 없다. 아까 시험 삼아 움직여볼 때와는 다르게 긴장감 때문인지 접촉제로 붙여놓은 듯한 느낌이다.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한다.

“비디오가 왜 이래?” 아니나 다를까 기술감독님이 이쪽을 쳐다보신다.

“누가 신입사원을 앉혔어?”



카메라 제어패널 OCP

선배님이 난처해한다. 이것으로 내 영상의 첫 추억은 아름답지 못하게 끝이 났다.

난 신입부서로 종합편집부를 지원했다. 전파공학을 전공했던 나는 방송기술이란 것을 미리 배운 적이 없던 터라 적응 기간이 꽤 필요했지만 TV 시청을 워낙 좋아했으므로 일도 재미있고 보람도 있었다. 4년이 지난 어느 날 직장인이란면 피해갈 수 없는 인사이동이라는 날벼락이 내게도 떨어졌다. 영상기술부로 가란다. 부서를 옮기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연예인은 많이 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어렸던 내게 위안이 되었다.

부서이동 후 1년 동안은 VTR 녹화업무를 했다. VTR 장비가 익숙해서인지 생방송에도 투입되고 안정적인 VTR 근무자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1년이 지나니 슬슬 영상업무를 배우란다. 사수를 따라다니며 더블근무를 들어가니 6년 차인 나는 다시 신입사원이 된다.

영상업무는 크게 시스템 관리와 영상의 색감(tone) 조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스템 관리라..." 형이상학적이다. 시스템 관리자란... 쉽게 말하면, 방송 제작 시 무엇인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플로어 모니터가 안 나오기라도 하는 날이면 해결은 영상 근무자의 몫이다.

기기실은 많은 장비들과 장비들을 연결하는 수십 가닥의 라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심지어 부조 바닥 마룻장을 들면 그 수백 수천 가닥의 라인들이 쌓여있다. 그 아래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오 마이 갓!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내가 저 많은 라인들의 정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쯤 벽면에 붙은 도면이 눈에 들어온다. 깨 알 같은 알파벳과 숫자들... 암호와 다름이 없다.

영상 근무 초기에 나는 근무 난이도가 낮은 "봄시다" 프로그램을 배정받았다. "봄시다" 프로그램이란 "하하랜드"와 같이 자료그림(PlayBack)이 주가 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드디어 영상근무자로서 첫 단독 근무 날, 나는 프로그램을 준비함에 부족함이 없다. 카메라 얼라인(alignment, 모든 카메라로 차트를 잡아서 같은 색감으로 맞추어주는 사전세팅)도 마쳤고 시스템도 이상이 없다. 카메라 빨간 볼(tally)도 확인 완료하였다.

출연자들이 등장하고 녹화를 시작하려는데 플로어(floor, 무대 아래쪽)에서 "모니터 안 나와요!"하는 소리가 인터컴(intercom, floor와 부조정실 간의 오디오 통신매체)을 통해 들린다. 정적이 흐르고 모두의 시선은 나에게로 향했다.

'내가 뭘 해야 하는 건가?', '왜 이제야 이런 애길 하는 것인가?'

머릿속이 하얘진 틈 사이로 별별 생각이 다 든다. 영상정비실의 누군가가 연락을 받고 달려왔고 케이블 접불(접합부분 불량)에 의한 문제라고 판명되었다. 녹화 지연은 10분이었으나 나는 10년은 늙은 느낌이었다.

그 후 시간은 흘러 흘러 영상 업무에 적응이 되니 비디오 근무의 공포감이 사라졌다. 도면도 눈에 들어오고 많은 케이블 중에 내가 체크해야 할 라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부서 후배도 생기고 그에 따라 "봄시다"는 후배에게 물려주고 중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음악 프로그램을 배정받았다. 카메라 대수도 많고 카메라들이 제작기 무대와 객석을 오가며 카메라 워킹을 하면 초보 비디오맨은 멘붕에 빠지게 된다. 카메라의 아이리스를 각각 조정해야 하는데 8대의 카메라를 모니터하며 조정하는 일은 만만치 않다.(2018년 현재는 8대의 카메라를 운용하는 프로그램은 소규모라고 할 정도로 12대 카메라를 쓰는 일도 많다.) 실시간으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면 화면은 밝았다, 어두워졌다 얼굴은 노랬다, 빨갰다~ 마음은 평정심을 잃게 된다. '앗! 핀 조명이 들어갔다. 얼라인 할 땐 분명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 핀 조명이 들어간 가수의 얼굴은 파란 스머프가 된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조명 팀과 미리 상의를 하고 핀 조명에 색 필터를 씌워 다른 조명과 색온도를 비슷하게 맞추어 주거나 얼라인을 두 번 진행하여 핀 조명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의 카메라 세팅을 저장해놓고 그때그때 불러 쓴다.

첫 음악 프로그램으로 “MBC 가요큰잔치”를 배정받았다. 새벽같이 카메라 8대를 얼라인하고 아침부터 음악 리허설, 점심 먹고 카메라 리허설, 저녁 먹고 본 녹화까지 영상을 보고 있다면 처음 듣던 노래도 자연스레 외워진다. 2주에 한 번씩 영상근무를 하면서 나는 트로트 마니아가 된다. “MBC 가요큰잔치”의 고정 스태프가 되다 보니 녹화일 뒷풀이 행사로 뽀글머리 현철 아저씨와 같은 테이블에서 맥주도 마셔본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음악프로그램의 최고봉은 누가 뭐래도 토요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쇼 음악중심”이다. 예전 제목은 “음악캠프”(1998.04.25.~2005.07.30.)였는데 2005년 7월 인디밴드 “카우치” 사건으로 “음악캠프”가 폐지되고 3개월 후 “음악중심”이란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였다. 불미스러웠던 방송사고로 인해 “음악중심”을 생방송 할 때는 딜레이 방송을 한다. 딜레이 방송이란 생방송 시작시간보다 5분 정도 일찍 공연을 시작하여 그 내용을 녹화서버에 저장한 후 생방송 시간에 맞춰서 다시 Play 시키는 방송을 말한다. 딜레이 방송을 하면 출연자의 실수, 예기치 않은 방송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음향사고 등으로 딜레이를 사용하면 그 후에 일어나는 사고는 막을 수 없으므로 작은 사고는 무시하기로 제작진과 협의한다. (현재 “음악중심”도 EVS 장비로 5분 딜레이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영상 입문 3년 만에 드디어 음악중심 비디오 근무에 투입되었다. 요즘은 10대 이상의 카메라를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는 8대의 카메라를 생방송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규모였다.

어느 토요일, 카메라 사전 체크 중에 회색화면이 2개나 보인다. 비디오 근무 연차가 쌓이다 보니 이 같은 상황은 전혀 당황스럽지 않다. ‘또 접붙인가보네...’ 카메라 클리너 세트를 가지고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카메라 광케이블 청소는 이력이 났다. 클리닝을 끝내고 다시 부조로 올라갔으나 한 대는 여전히 회색화면이다. 맘속에 동요가 조금 일어난다. 기기실 장비를 재부팅 해보고 광케이블 연결도 다시 해본다.



영상 조정 작업

‘이 방법도 아니면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데...’ 이미 부담은 백만 배... ‘앗, 카메라 그림이 들어온다.’ 그러나 카메라를 조정하는 OCP(operation control panel)에는 들어오는 신호가 약하다며 빨간 불(alarm)이 깜박깜박 경고를 하고 있다. 생방송 중간에 신호가 끊어진다면 방송사고의 빨간 줄이 평생 나를 따라다니게 된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니 오후 세시... 점심을 먹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한다. 다행히 비디오석 옆을 돌아보니 신화 팬클럽이 제공한 간식이 내 몫으로 하나 놓여있다.

그러나 카메라 리허설은 시작되고, 리허설하는 동안 나는 아이리스 춤을 추며 음악을 느껴본다. 리허설이 끝나고, 채 10분도 되지 않아 생방송 시간이 되었다. 이제 나의 운을 믿어본다. On-Air 등(주조를 통해 송출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등)이 들어온 후부터는 실새 없이 아이리스를 조정하다 보니 카메라 경고의 빨간 불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 그 날 나는 아무 사고도 없이 생방송을 마무리했다.



상암 신사옥 예능 프로그램 녹화 부조정실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찍는 어린이 예능 프로그램



음악중심, 복면가왕 등 음악을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은 훨씬 복잡해졌다. 음악중심은 카메라 10대~11대, 복면가왕은 스튜디오 카메라 12대를 혼자서 운용해야 한다. 선진국은 영상 엔지니어 1명이 3~4대 정도의 카메라를 담당하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이 많은 카메라를 혼자서 조정한다. 대한민국이 기술강국(?)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Wireless 카메라나 미니카메라도 사용하게 되면 새벽같이 출근하여 준 비하여도 부족하다. 복면가왕은 부조 시스템에 물리지 않은 ENG 카메라(개별 녹화 카메라)들이 10대 이상 되기 때문에 규모나 녹화 시간이 입사 초기의 그것과 너무나 차이가 크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비디오맨의 역할이 다른 프로그램의 그것과 다른 점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토크나 시사프로그램과 다르게 화려한 조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영상 운용이 달라진다. 예능 프로그램은 화려하고 다채로운 영상을 만들기 위해 기본적인 화이트 조명 외에도 다양한 색상 조명과 공연용 스폿 조명들을 사용한다. 다양한 조명들의 공격으로 비디오맨은 카메라 얼라인을 공들여 했음에도 모니터에서 자신이 만든 영상에 깜짝 놀라게 된다. 예를 들어, 포그(안개와 같은 미세한 입자 발생장치)를 사용하면, 영상은 겹잡을 수 없이 뿌옇게 변한다. 일반적으로 “그림이 뒀다”라고 표현하는데, Black 신호가 측정기에서 많이 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영상의 블랙신호가 뜬 채로 방송을 내보내면 시청자들도 시청하기에 불편하지만 많은 영상인들(?) 특히 영상기술 부장님의 따끔한 질타를 받을 것이다. 시청자들을 만족시키면서 내가 원하는 색감으로 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다. 영상의 기준이 되는 Black(영상이 시작되는 기준 레벨)이나, Gamma(입력되는 영상대비 표현되는 영상레벨 비율)를 바꿔주는 방법,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대표적이다. Gamma의 경우, 적용하는 Gamma Curve에 따라 영상의 색감이 달라지고 필터를 사용하면 일명 뽀샤시한 느낌 등 여러 가지 색감을 만들 수도 있다. 특정 색상의 포화도(Saturation)를 높이거나 낮추어 다양한 느낌의 영상을 내보기도 한다. 음악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다양한 영상의 조정으로 실험적인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큰 매력이다.



영상기술 분야가 “방송기술의 꽃”이라 할 만큼 자긍심도 크고 인기도 많았다. 방송기술에 IT가 융합되는 등 여러 변화로 인해 영상분야가 예전보다 비중이 줄어든 것 같으나 방송기술의 근간은 영상이고 기술인으로서 영상은 놓을 수 없는 분야임이 명백하다. 지금은 나도 영상 일에서 조금 벗어난 <버추얼 스튜디오>에 근무하며 범 영상기술인으로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나의 뿌리는 영상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